

'스튜디오 S' 출범

품질 × 수익성 × 규모

대한민국
No.1 스튜디오로!

'스튜디오 S'가 공식 출범했다.

SBS는 2020년 4월 1일(수), 100% 자회사인 '더스토리웍스(주)'를 '(주)스튜디오 S'로 사명을 변경하고,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드라마 스튜디오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어려운 경쟁 상황에서도 메가 히트작들을 선보이며 '제2의 르네상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SBS 드라마는 '스튜디오 S' 출범을 통해 드라마 왕국으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고품질 드라마를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각오다.

'스튜디오 S'에는 기획, 캐스팅부터 연출, 제작, 마케팅, 뉴미디어, 부가 사업 등 드라마의 제작부터 수익 창출까지 모든 과정이 내재되어 있다. 이를 바탕으로 SBS에 연간 15편의 드라마를 공급할 예정이고, 외부 OTT나 다양한 채널의 콘텐츠 제작, 유통까지 병행하여 연간 총 2~30편의 드라마 제작을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출범 직후 2~3년간 다수의 블록버스터를 제작하여, SBS 드라마의 전반적인 라인업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스튜디오 S'는 업계에서 검증된 최고의 작가와 연출진을 확보했다. <낭만닥터 김사부> 1, 2의 강은경 작가, <열혈사제>의 박재범 작가를 필두로 정성주, 박경수, 이희명 등 베테랑 작가들과 <피고인>, <홍부외과>의 최수진, 최창환 작가, <VIP> 차해원 작가 등 시장에 새 바람을 일으킨 신인 작가들까지 작가진만 40여 명에 달한다. 이 정도의 작가 라인업은 국내에서 유례가 없는 일이다.

연출 라인업 또한 '스튜디오 S'의 핵심 경쟁력이다. <낭만닥터 김사부> 1, 2, <배가본드>의 유인식, <별에서 온 그대>, <하이메나>의 장태유, <피고인>의 조영광, <육룡이 나르샤>, <녹두꽃>의 신경수, <미녀 공심이>, <냄새를 보는 소녀>의 백수찬, <리턴>, <황후의 품격>의 주동민, <의사 요한>, <너의 목소리가 들려>, <피노키오>의 조수원 등 연출 경력 10년 차 이상의 감독들을 비롯해 SBS의 젊고 패기 넘치는 감독들도 합류했다. 또한, 계속해서 좋은 연출을 키워낸 SBS의 연출 조직과 시스템도 고스란히 넘어왔다.

'스튜디오 S'의 대표이사는 한정환 전 SBS 드라마본부장이 맡았다. 제작은 홍성창 제작국장이, 경영은 김동호 경영사업국장이 총괄한다. 또한, 드라마본부 대부분의 구성원이 '스튜디오 S'로 전적했다.

'스튜디오 S' 한정환 대표이사는 "지상파가 갖고 있는 차별적 규제의 구조적 한계에서 벗어나 우수한 제작요소를 확보하고,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회복할 것"이라며 "품질, 수익성, 규모 면에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No.1 스튜디오로 만들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SBS 사장 박정훈 대표이사도 "지상파에서는 유례없는 드라마 전문 스튜디오의 출범과 성장을 통해 모회사인 SBS도 기업 가치 제고 및 킬러 콘텐츠 확보가 용이해져 새로운 윈-윈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SBS는 스튜디오의 최대 주주이자 가장 큰 고객이 되어 스튜디오와 협업할 것임을 약속드린다"며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김은숙 작가, 차원이 다른 로맨스 판타지로 귀환

이민호 × 김고은

더킹

영원의 군주

4월 17일(금) 첫 방송



새 금토드라마 <더 킹-영원의 군주>(극본: 김은숙, 연출: 백상훈, 정지현)가 4월 17일(금) 첫 방송된다. <더 킹-영원의 군주>는 차원의 문(門)을 닫으려는 이과(理科)형 대한제국 황제 이곤(이민호 분)과 누군가의 삶, 사람, 사랑을 지키려는 문과(文科)형 대한민국 형사 정태을(김고은 분)이 두 세계를 넘나드는 공조를 통해 그리는 차원이 다른 판타지 로맨스다.

<시크릿 가든>, <태양의 후예>, <도깨비>, <미스터 션샤인> 등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필력 김은숙 작가와 <태양의 후예> 백상훈 감독,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WWW>의 정지현 감독이 의기투합하여 기대를 모은다. 특히, 지난 2월 말 1차 티저가 공개되자,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는 등 2020년 최고의 기대작임을 입증했다.

<더 킹-영원의 군주>는 황제 이곤을 중심으로 하는 대한제국의 이야기와 형사 정태을을 중심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이야기가 시공을 초월해 펼쳐진다.

이민호가 맡은 이곤은 대한제국 3대 황제로서 기품 있는 자태와 고요한 성품, 문무를 겸비한 완벽한 황제이다. 그러나 그가 8살 때 겪은 역모의 밤과 아버지의 죽음은 그를 예민하고 강박적으로 만들었다.

김고은이 맡은 정태을은 어린 시절 친구들이 공주 이야기에 심취해 있을 때 <경찰청 사람들>에 심취했던 6년 차 대한민국 강력반 형사이다. 세상의 모든 수학 문제를 풀지 못하면 외우겠다는 의욕으로 경찰대에 합격하는 기적을 행한 전형적인 '문과 여자'이기도 하다. 태을은 광화문 한복판에 백마를 타고 나타나 평행세계에서 온 황제라고 주장하는 미친놈을 만나고부터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한다. 김고은은 대한민국의 형사 정태을을 역과 대한제국의 범죄자 루나 역을 맡아 1인 2역으로 상반된 매력을 선보인다.

우도환은 대한민국 사회복지요원 조은섭으로, 또 대한제국 황실 근위대 1중대 대장 조영으로 1인 2역에 도전한다. 이곤의 최측근인 조영은 어린 시절부터 이곤의 행복만을 바

라왔으며 이곤 역시 오로지 조영 앞에서만 무장해제된다. 정은채는 술꾼 아버지와 생선 장수 어머니 밑에서 악착같이 공부하고 성공하여 대한제국 최연소 총리이자 최초의 여성 총리가 된 구서령 역을 맡았다. 서령은 자신이 정계로 진입하는 데 발판이 되어준 명문가 남편과 이혼한 후 황제 이곤을 다음 타깃으로 노린다.

이정진은 대한제국 선헌제의 이복형이자 황제 이곤의 큰 아버지, 금친왕 이림 역을 맡았다. 서자라는 이유로 황제가 되지 못한 이림은 인간의 욕망을 깨물어 보고 그 욕망보다 거대한 존재가 되기로 결심한 인물로, 극의 긴장감을 끌어올리는 기폭제로서 활약한다. 그밖에 김경남, 김영옥, 전배수, 서정연, 박원상, 김용지, 이해영, 박지연, 박소진 등이 <더 킹-영원의 군주>에 이름을 올렸다.

다른 세계를 사는 두 사람의 공조가 때론 설레게, 때론 가슴 시리게 펼쳐지는 차원이 다른 로맨스 판타지 <더 킹-영원의 군주>는 4월 17일(금) 밤 10시에 첫 방송된다.

이경원 기자, 마부작침 - 이달의 기자상

보도본부 이슈취재팀 이경원 기자와 데이터저널리즘팀 마부작침이 한국기자협회가 수여하는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했다.



이경원

이경원 기자는 코로나 19와 관련된 유언비어가 빠르게 퍼지는 상황에서, 사실 여부를 팩트체크하는 '코로나 팩트체크' 보도로 기획보도 방송부문을, 마부작침은 국회의 부실한 예산 심사 실태를 심층 취재한 '2020 국회 예산회의록 전수분석' 보



심영구 배여운 정혜경 안준석 안혜민 이유민 이승우

도로 전문보도 부문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했다. 마부작침은 매년 예산회의록을 심층 분석해, 2018년부터 이 보도로 3년 연속 이달의 기자상을 받았다.

'체육계 성폭력' 연속 보도 국제엠네스티언론상

'체육계 성폭력' 연속 보도(이경원, 정경윤, 원종진, 김민정, 최재영, 고정현, 정다운, 김형열, 하성룡, A&T 제일)가 2020년 제22회 국제엠네스티언론상을 수상했다.

이경원 기자 등은 2019년 1월,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가 성폭력 혐의로 추가 고소된 사실을 처음 보도한 뒤, 연속 보도를 통해 우리 체육계에 만연한 폭력과 성폭력 실태를 고발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 연속 보도는 작년에 이달의 기자상, 이달의 방송기자상, 양성평등미디어상 최우수상을 받은 데 이어 네 번째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시상식은 코로나19 사태로 생략되었으며 수상자들은 5월 3일 '세계 언론자유의 날'을 기점으로 5월 한 달간 온라인을 통해 순차 공개될 예정이다.

믿고 보는 선거방송 2020 국민의 선택 20

'오늘, 우리 손끝으로'

'믿고 보는 선거방송'으로 자리 잡은 SBS 선거방송이 오는 4월 15일(수) 국회의원 총선거와 함께 한층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돌아온다. '오늘, 우리 손끝으로'를 슬로건으로 내건 <2020 국민의 선택>은 유권자들의 한 표, 한 표의 의미를 읽어내고 국민이 제시한 우리 사회, 우리 정치의 나아갈 길에 주목한다. 또한 파노라마로 펼쳐지는 미디어 월 실시간 영상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역동적인 총선의 현장 속으로 시청자들을 안내한다.

시청자가 궁금한 모든 것, 인공지능 'AI 유확당'이 알려 준다

SBS 당선예측분석시스템 '유·확·당' (유력/확실/당선)에 국내 최고 통계 전문가들과 인공지능 AI 기술이 결합했다. AI 유확당은 전체 지역구 모든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실시간 당선 확률을 계산해 내고 개표 초기 안개 속 판세에서도 시청자들에게 명쾌한 선거 결과 전망을 보여준다.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비례전당 정당의 등장 등으로 수학공식처럼 복잡해진 비례대표 후보자들의 당선 예측도 AI 유확당은 1초 이내에 계산해 낸다. 이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시시각각 변하는 판세를 실시간으로 전달한다. 파노라마 데이터 월과 터치분석실 등 SBS만의 노하우가 담긴 미세 데이터 분석을 통해 연령별, 권역별 숨은 표심을 비롯한 유권자들의 선택에 담긴 속뜻을 풀어낸다.

SBS 선거방송의 트레이드마크 그래픽, 코로나19로 잃어버린 '일상'을 선사한다

<2020 국민의 선택>의 그래픽은 '생동감 있고, 명쾌한' 디자인으로 업그레이드됐다. SBS 선거방송만의 '풍자'와 '유티'가 담긴 그래픽부터 코로나19로 힘든 일상을 보내고 있는 시청자들을 위로하고 응원할 감성적인 그래픽까지 방송 준비를 마쳤다. 선거방송 때마다 큰 화제가 됐던 '느낌 있는' 기발한 그래픽은 이번에도 충분히 기대할 만하다. 전국 253개 지역구의 개표상황 모니터링과 분석을 통해 박빙의 접전이 펼쳐지고 있는 지역을 선별해 실시간 개표 상황을 그래픽으로 표출해 낸다. 특히 총선 핵심 이슈별 데이터를 추려내 시청자들이 한 눈에 쉽게 선거 판세를 볼 수 있도록 했다.

SBS 메인앵커 총출동, 잠들지 않는 선거방송

<2020 국민의 선택>은 개표 상황에 대한 시청자들의 궁금증이 남지 않는 순간까지 '온에어'된다. 이를 위해 SBS 뉴스를 책임지는 메인 앵커들이 총출동한다. <SBS 8 뉴스>의 김현우, 최혜림, 김범주, 김민형 앵커를 비롯해 <뉴스브리핑> 주영진, <나이트라인> 편상욱 앵커가 선거방송을 통해 시청자들과 만난다. 특히 정치판의 맥을 짚어내는 주영진 앵커가

결전을 치른 후보자들과 라이브 인터뷰를 통해 생생한 소감을 듣고, 자정을 넘은 시간에는 지난 5개월 동안 SBS 유튜브 방송을 통해 총선 소식을 전해온 편상욱 앵커가 정치 분석가들과 함께 명쾌한 분석과 유쾌한 해설로 시청자들을 찾아간다. 한승희 선거방송기획팀장은 "바뀐 선거법과 변화무쌍한 정치 지형으로 인해 시청자들이 궁금해 할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했다"며 "코로나19로 조심스런 일상을 보내면서도 굳은 의지로 한 표를 행사한 시청자, 또 어려움 속에 투표를 못 하게 된 분들도 SBS 선거방송을 보시면 서 유권자의 힘을 확인하고, 희망을 느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뇌섹남의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 러브FM 허지웅쇼

지성, 감성, 재치와 입담으로 버무린 정보 버라이어티



작가 겸 방송인 허지웅이 생애 처음으로 라디오 DJ로 데뷔했다.

3월 30일(월) 방송을 시작한 SBS 러브FM(103.5Mhz) <허지웅쇼>(연출: 김훈중)는 매일 오전 한 시간 동안 방송되는

버라이어티 정보 프로그램이다.

허지웅은 이 프로그램에서 지성과 감성을 넘나들며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을 특유의 시선으로 풀어낸다. 투병 이후 일상의 소중함을 더욱더 절실히 느끼고 있다는 허지

웅은 이제 날카로운 비평보다는 보다 따뜻한 시선으로 매일 오전, 청취자들과의 교감에 나선다.

'씨네 21' 이다혜 기자와 신유진 변호사의 '꿀 케미'를 만날 수 있는 '무법지대', 음악평론가 배순탁, 드러머 김간지의 플렉스한 선곡 대결 '순간의 선택', 음식 고수들이 출연해 음식의 맛과 인생의 맛을 맛깔나게 전해주는 '이 맛에 산다', 그 밖에도 호기심 넘치는 코너들이 프로그램을 채운다.

허지웅은 <썰전>, <마녀 사냥>, <미운 우리 새끼>,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해 감각적인 입담과 재치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저서로는 '나의 친애하는 적', '버티는 삶에 관하여' 등이 있다.

영화평론가, 시사 프로 논객 등 다방면의 뇌섹남 허지웅이 전하는 차원이 다른 정보쇼 <허지웅쇼>는 매일 오전 11시에 러브FM에서 만날 수 있다.

부서탐방



“최종 결과물은 우리 손에서 만들어진다”

- 경영본부 기술국 편집기술팀

‘코로나19’사태에 편집기술팀은 어떻게 돌아오고 있나?

사내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다고 하는 6층과 8층에 근무자가 위치하고 있어 요즘은 더욱 예방에 신경쓰고 있다. 특히 종편실은 PD, 기자, 조연출, 자막, 음악감독 등 많은 인원이 폐쇄된 공간에 밀집해서 장시간 일하는, 그야말로 ‘코로나 취약 지대’이다. 하지만 업무 특성상 불가피하기 때문에 청결유지,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 기본에 충실하고 있다.

어떤 일을 하는가?

종합편집, 색 보정, 오디오 품질 관리, 효과실 관리, 인제스트, UHD 리마스터링, 편집실 관리 업무를 한다. 먼저 종합편집은 방송용 최종본을 만드는 작업이며, 여기서 완성된 방송본은 곧바로 조조정실로 입고되고 방송으로 송출된다. 최근에는 사전제작 사례가 많이 늘어나면서 적어지긴 했지만 아직도 방송 시간에 압박해서 아슬아슬하게 제작되기도 한다. “어젯밤 드라마, 혹은 예능이 몇 토막으로 나뉘져 송출되었다더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면 전날 밤 종편 작업이 긴박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색 보정 업무는 다수의 카메라로 촬영한 컷들의 톤을 균일하게 맞춰 영상의 단절감을 없애고 연속성을 갖게 하는 작업이다. 여기에 더해 장르에 맞는 톤을 잡고, 배우들의 피부 뷰티 작업도 한다. 요즘은 ‘필름 룩’이라 불리는 영화 느낌의 영상에 제작진의 관심이 많다. 이 때문에 드라마의 경우 외부 업체에서 작업하기도 하는데, 우리 색 보정 팀도 최근에 <VIP>, <남만덕터 김사부 2> 등에서 아름다운 색감으로 호평받았다. 인제스트실은 교양, 예능의 촬영 원본을 편집이 원활하게 되도록 변환하고 정리하여 저장하는 곳이다. 간단한 작업인 것 같지만, 요즘 관찰 예능 트렌드는 카메라를 100대 가까이 사용하는 프로그램도 많기 때문에 매주 촬영 영상을 정리하고 변환하는 것도 상당한 일이다. 최근 사내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 ‘트랜스코딩 팜’을 도입하여 이런 복

잡한 작업을 쉽고 빠르게 하려는 노력도 진행 중이다. UHD 리마스터링 업무는 영상파일 변환과 화질 개선 작업을 통하여 UHD 방송이 가능한 정도까지 화질을 올리는 작업이다. 일부 UHD로 편성된 프로그램을 작업하고 있다. 오디오 품질 관리 업무는 스포츠 빅 이벤트, 연말 시상식, 가요대전과 같은 주요 생방송의 오디오 품질을 관리하며 차세대 오디오 제작기술을 연구한다.

인원은 어떻게 되나?

종편 경력 20년의 김원수 팀장을 포함 23명의 팀원이 있다. 이중에 종합편집이 12명, UHD 2명, 색 보정 5명, 오디오 QC 1명, UHD 리마스터링 1명, 인제스트 1명이 각각의 업무를 담당한다. 종편실은 SBS 종편의 산 증인이라 할 수 있는 김학정 국장, 박두선 부장이 종편실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10년 차 이상의 양창주, 장철, 남아영, 안철환, 오승훈, 원진희 감독이 주요 프로그램을 책임진다. 섬세함, 자상함, 카리스마, 세련미, 따뜻함, 신속함 등 6인 6색의 개성이 있다. 그 밑으로는 종편의 F4로 불려지는 손종석, 이재경, 신준호, 황돈희 감독이 신기술로 무장하고 성장하는 중이다. UHD는 한광만, 배준경 감독이 UHD 제작 가이드 역할을 담당한다. 색 보정실은 <별그대>, <김사부 1, 2> 등으로 대표되는 베테랑 한중우, 황철현 감독이 있고, <리턴>, <VIP> 등의 장르물 전문 이승재, 김현민 감독이 있다. 오디오 QC를 담당하는 박찬호 부장은 올림픽, 월드컵, 가요대전 등 빅 이벤트의 오디오 품질을 조율한다. 최근에는 <트롯신이 떴다> 음악 작업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인제스트실 운영 및 교양, 예능 편집실을 관리하는 이근형 차장은 오랜 종편 경험을 바탕으로 편집 시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카리스마로 해결하는 능력을 지녔다.



애로점은?

종편은 수~토에 업무가 몰리고, 특히 금요일은 주말 프로그램으로 꽉 차 있다. 명절 기간, 공휴일 전날 등도 종편 수요가 폭증한다. 가장 반갑지 않은 말이 ‘징검다리 휴일’이다. 물론 사내에 공감하는 분이 많을 것이다. 드라마 색 보정의 경우는 시청자의 눈높이가 높아졌기 때문에 전보다 더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 한다. 방송되는 드라마 편수는 줄었지만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작업 시간이 필요하다. SBS 드라마에 출연하는 배우들이 유독 더 예뻐 보인다면 우리 팀의 노고가 많이 들어간 것이다.

팀원 간 협조나 단합은 잘 이루어지나?

우리 팀 업무는 개별로 일하지만 팀플레이 성격이 크다. 당일 방송되는 중요한 종편이 많고 작업 스케줄 변동이 잦기 때문에 옆 동료의 일을 나눠서 해야 할 상황이 많다.

코로나 사태 전에는 출근하면 사무실에 모여 20분 정도 티타임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전날의 작업 이슈를 공유하고 서로의 안부를 나눈 후 각 방으로 돌아가서 업무를 시작했다. 팀워크를 위해 야유회는 가급적 1박 2일로 갔다. 2년 마다 있는 빅 이벤트 기간이 우리 팀에는 적당한 시기이다. 정규 프로그램이 많이 결방되기 때문이다. 예정대로였다면 올해는 도쿄올림픽 기간이 되었을 것이다.

사원들에게 한마디

한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방송되기까지 무수히 많은 손을 거쳐 간다. 그 수많은 노력과 결실이 깃든 최종적인 결과물이 편집기술팀에서 만들어진다. 따라서 책임감이 막중하지만 무사히 작업을 끝냈을 때 안도감과 보람을 느낀다. 종편, 색 보정 시설을 여유 있게 잘 활용하고 싶으면 종편은 주말보다는 주 초반으로 신청하고, 색 보정은 일찍 의뢰하기 바란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SBS 플러스

K랭귀지 전파 **한글말** 성황리에 종영

‘K랭귀지’ 확산에 앞장선 <맨땅에 한국말>이 지난 7일(화), 7회를 끝으로 종영했다. <맨땅에 한국말>은 나탈리아 카바잘(2018 미스 유니버스 코스타리카), 페이스 랜드만(2017 미스 어스 네덜란드), 뷁락 코력나이(2017 미스 월드 헝가리), 다이아나 햄드(2019 미스 유니버스 이집트)가 출연해 한국의 언어와 다양한 문화를 배우는 프로그램이다. 이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시청자들 역시 ‘K랭귀지’의 우수성과 한국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 번 깨달았으며, 미녀 4인방의 나라에 대해서도 알아가는 시간이 됐다. 뷁락과 다이아나는 지난 2월 헝가리의

한 인기 프로그램을 통해 <맨땅에 한국말>에 출연 중인 소감과 한국의 아름다움을 전해 눈길을 모으기도 했다. K팝, K푸드를 이을 다음 트렌드로 K랭귀지에 주목한 기획의도처럼 <맨땅에 한국말>은 K랭귀지 전파에 디딤돌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미녀 4인방은 “한국에 다시 오고 싶다”고 종영 소감을 밝혔다.



보도본부 이기성, 라디오센터 구경모 안식년

뉴미디어뉴스부 이기성 부국장과 라디오2CP 소속 구경모 부장이 오는 5월에 안식년을 맞는다.



민원 기자로 정평이 났던 이기성 부국장은 1995년 3월 SBS에 새 동지를 틈 뒤 탁월한 취재력으로 ‘기무사 장성 병역비리 연루 의혹’ 특종으로 1999년 한국방송기자클럽 취재보도상과 2000년 이달의 기자상을 휩쓸었다. 이후 베이징 특파원과 뉴미디어부장, 국제부장, SDF 사무국장, 선거방송팀장을 역임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SBS 발전에 기여했다. 또한 2000년 SBS 노조 부위원장, 2003년 SBS 기자협회 회장을 맡아 노조와 기자협회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이 부국장은 25년의 SBS 기자생활을 마감하며 후배들에게 “분열과 가치 혼란의 시대에 SBS뉴스가 한국 사회의 중심을 잡는 좋은 보도를 이어가길 응

원한다”고 전했다. 이 부국장은 대학에서 취재보도 강의를 맡을 예정이다.



구경모 부장은 1996년 10월 SBS Power FM 개국과 함께 경력 특채로 입사했다. 당시 신생이자 후발 주자였던 SBS 라디오의 기초를 다지고 이후 <하하의 텐텐 클럽>과 같은 대표적인 청소년 프로그램을 론칭, 대히트 시키면서 Power FM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했다. 또 라디오의 대형 공개방송 전문가로서 <LA 한인 음악 축제>와 같은 굵직한 대형 프로젝트를 라디오 주도 하에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 그의 활약은 현재 Power FM의 채널 청취율 1위에 밑거름을 제공했고, 가요 전문 라디오 PD로 명성을 얻게 되었다. 그의 전문성과 열정은 후배들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최고의 라디오 PD로 기억될 것이다.